

물(川)은 예술이다

정 혜 진

지금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다. 하루 종일 공부에 절어 그저 피곤하고 졸릴 뿐이다. 항상 똑같은 일상에 지루해진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나를 위한 일일까?'하는 회의론을 느끼기 시작한다. 역시 쓸데없는 생각이다. 한참을 초점 없는 동공으로 무언가를 바라보다가 어렸을 때의 추억이 내 뇌리를 번득 스쳐 지나간다. 야간 자율학습 내내, 내 머리를 붙잡아둔 그 추억인 즉, 물 따라 걷던 아름다운 추억이다.

내 친구들이 이 말을 듣는다면, "물 따라 걷기?"라고 말하며 나를 촌녀이라는 눈빛으로 쳐다볼 것이다. 일상을 컴퓨터와 함께 보냈던 그들에게는 이런 추억이 보잘 것 없고 따분한 것으로 느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나는 내 마음 속에 이런 추억이 담겨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 추억을 생각할 때마다 행복해진다. 지금은 학교에서 밤 10시까지 공부에 허덕이는 고등학생이라 물 따라 걷기는커녕 제대로 운동할 시간도 없다. 이런 내 처지 때문에 어렸을 적 내가 더욱 그리워지는 것이 아닐까?

어렸을 적, 정확히 말해 초등학교 때이다. 저녁식사가 끝나면, 나는 거의 매일같이 엄마와 무심천을 걸곤 했다. 무심천 주위에 도보 길과 자전거 도로가 모두 만들어졌던 해부터 우리 모녀는 그렇게 계속 무심천을 걸었다. 한 해의 시작인 봄부터 겨울까지 그렇게 꾸준히 걸었다.

내가 사는 청주는 비록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어엿한 도시다. 도시에서는 바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냄새가 가득 풍긴다. 그러나 무심천 길은 예외였다.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의 땀 냄새, 풀 냄새가 내 코를 자극했다. 또한, 도시에서는 자동차 경적소리, 개업한 가게의 시끄러운 소음이 나를 괴롭게 한 반면, 무심천 벌레들의 울음소리는 내 마음을 고요하게 했다. 정말 정글맞게 벌레를 싫어하는 나인데도, 그 때의 그 소리는 천사의 목소리를 가진 코니 텔벗의 노래를 듣는 것만큼 기분이 좋았다. 이처럼 나는 이 시절의 저녁시간을 무심천과 함께 보냈다. 걷기도 하고, 때로는 자전거를 타면서 말이다.

금강산은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으며 자신의 모습을 파파라치들에게 과감하게 공개하곤 한다. 그런데 금강산만 계절을 따라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자연은 순리에 따라 변화한다. 무심천도 자연이기에 일 년에 네 번 그들의 옷을 갈아입는다.

봄에는 푸른색으로 염색을 한다. 이전 해의 좋지 않았던 일을 모두 다 잊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다. 풀들은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격려, 위로의 말을 건네는 고마운 친구다. 푸릇푸릇한 생명체들을 보며 엄마와 나누었던 얘기들

이 문득 떠오른다. "엄마, 여기서 네잎클로버를 찾을 수 있을까?", "엄마, 이 꽃으로 반지 만들어줘." 이런 말을 할 때면 엄마는 항상 어린 나의 비위에 맞춰 대답해주셨다. 엄마와 말할 때면 나는 수다쟁이가 되곤 했다. 이처럼 무심천 덕에 나에게 봄은 항상 흥미로운 계절이었다.

시간이 지나 여름이 오면 많은 이들이 이곳을 더 많이 찾았다. 무심천 주변의 풀과 나무들이 시원한 공기를 내어주기 때문이다. 에어컨 바람은 이 '신선한' 바람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우리 모녀는 이 바람 맛에 중독되어 만날 무심천을 찾곤 했다. 우리 모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청주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서 어느 여름방학 저녁때는 사람이 너무 많은 탓에, "뭐야, 이 사람들..."하고 짜증냈던 적도 있다.

그래도 여름 무심천 풍경은 참 즐거워 보였다. 모두들 하천을 따라 걸으며 집에서는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쏟아내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은 것은 아니다. 그냥 그들의 표정을 보면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자연 속에서 즐겁게 웃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연을 파괴하는 짓을 하는 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언젠가 교회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친구들과 무심천에서 한바탕 물놀이를 한 적이 있었다. 우리는 물 아래 조개도 잡고 모래를 가지고 놀기도 했다. 그런데 엄마로부터 어디냐고 전화가 왔다.

"나 무심천에서 애들이랑 놀고 갈게."

나는 한참 재미있다는 듯이 말했다.

"이놈의 지지배야, 피부병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래? 빨리 집으로 와!"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셨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집에 들어갈 나도 아니었지만 엄마의 호령을 받은 뒤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흐르는 무심천 물에서는 거품이 뚱뚱 떠내려 오고 있었고, 주변에는 비닐봉투 등 생활 쓰레기들이 적지 않았다. 엄마가 어렸을 적에는 무심천에서 떡 감고 놀았다는데 그런 엄마가 지금은 피부병 걸린다고 다리만 담그는 것도 반대하신다. 도대체 언제부터 물이 이렇게 더러운 취급을 받았을까? '깨끗한' 이미지를 상징하는 물이 누구 때문에 거품을 물고 떠내려가는 것일까?

도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여태까지 물에게 한 짓을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자손들에게 미칠 일들을 반성해야 한다. 당신들의 자손들도 물장구 치고 놀 권리가 있다. 비록 사소해보일 지도 모르지만, 이 사소한 권리가 자손들에게는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드디어 속 썩이던 장마도 끝나고 풍요의 계절 가을이 온다. 바람결에 갈대가 살랑살랑 흔들리고, 물 위에는 떨어진 누런 나뭇잎들이 무심천 끝자락을 따라 스스로 배가 되어 길을 떠난다. 나는 가을을 가장 좋아하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경관들을 마음껏 볼 수 있어서이다. 여름에서 가을로 완벽 변신한 무심천을 볼 때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이 아름다운 경관을 눈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엄마와 사진을 찍으러 가기도 했다. 나보다 키가 큰 갈대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멋진 포즈를 취하고 찍을

때면 어느 모텔 스타들도 부럽지 않았다. 또, 두루미가 물고기를 찾아 그 뽕족한 부리를 물 깊숙이 담그는 모습, 잠자리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모습 등 물결을 따라 걷다보면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그림들이 1초에 수십 번씩 스쳐갔다. 그 풍경화들을 모두 담을 수 없는 내 좁은 마음의 그릇을 탓할 뿐이었다.

내 눈을 즐겁게 해 주던 가을은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그리고 사람들을 긴장시키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마지막 계절인 겨울을 드디어 드러낸다. 찬바람과 눈으로 무장한 겨울은 유유히 흐르던 무심천의 물도 뚝뚝 얼게 했다. 뚝뚝 얼어 흐르지 않는 무심천은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두루미도 찾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한참을 외롭게 지내던 하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준 것은 바로 지역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무심천의 한 부분을 썰매장으로 만들었다. 한번은 엄마와 나도 썰매를 타러 갔던 적이 있었다. 그 때는 엄마도 나와 같은 초등학생 어린이 같았다. 누가 더 빨리 달리나 시합도 했다. 물론, 날쌔고 가벼운 내가 항상 이겼지만 엄마 실력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썰매 하는데?"라고 말했더니, 엄마는 어렸을 때 얼어붙은 논에서 오빠(나에게는 삼촌)가 만들어준 썰매를 타고 많이 놀았다고 했다. 그제야 엄마가 것처럼 신나게 놀았던 까닭을 알 것 같았다. 무심천이 엄마의 추억을 자극한 것이다.

이처럼 하천은 사계절 내내 우리 곁에서 그들의 모든 것을 제공해준다. 나와 엄마는 그곳의 매력에 취해 중학교 때 큰맘을 먹고 꽤 비싼 자전거를 샀었다. 내가 생각해도 조금은 충동적인 구매였다. 그런데 그렇게 거금을 들여 산 자전거가 지금은 창고에 묵혀져 있다. 자전거가 아까운 게 아니다. 그 자전거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적어도 수능까지는 시간에 쫓기며 살게 될 텐데, 나는 지금 당장 무심천으로 가고 싶어 발이 간지럽기까지 하다. 그러나 현실은 책상 앞에서 꼬리뼈가 아플 정도로 앉아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결론은 지금 무심천에서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당장은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이다. 수능이 끝나면 다시 무심천에 찾아가 그 동안에 내가 힘들었던 것들을 모두 털어놓고, 새로운 다짐을 맹세할 계획이다. 단지 자그마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아름답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사람들의 때 묻은 손이 내 추억이 담긴 하천까지 오염시킨다면 나는 정말 분개할 지도 모른다.